

일부 대리운전 사업자 · 콜센터업체들

# '카카오' 이용 기사 양자택일 압박

기존 서비스 중단 통보  
반성문까지 요구  
감시·인권침해 논란  
기사들 "생존권 약탈"

카카오, 업무방해 가져분 등  
법적 대응 준비 나서

일부 대리운전사업자와 콜센터업체들이 카카오 대리운전 호출앱인 '카카오 드라이버' 이용 기사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 대리운전사업자들이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자신들의 서비스와 카카오 드라이버 가운데 양자 택일 할 것을 요구하며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15일 대리운전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리운전사업자 등은 기사들에게 전체 메시지를 통해 사실상 카카오 드라이버를 이용할 경우 자신들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타사콜(카카오 드라이버)을 받으면 콜 확보 기회를 박탈하겠다. 휴대폰을 두개 써도 알아낼 수 있다" "(카카오 드라이버를 이용하다 걸린) 제한된 기사들은 소속회사 사무실로 가서 협약서를 작성한 뒤 제재를 풀 수 있다" "협약서를 쓰고도 카카오(카카오 드라이버)를 병행하면 다시는 연함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 드라이버를 이용하다 적발된 기사가 기존 서비스를



브라질에 진출한 삼성 페이 삼성전자가 14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이비라푸에라 홀(Ibirapuera Auditorium)에서 삼성 페이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브라질 소비자들이 삼성 페이를 체험하고 있다.

그대로 이용하려면 '나시는 카카오 드라이버 콜을 받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리운전 기사들은 명백한 생존권 및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 모 대리운전연합회에 소속된 40대 대리기사 이모씨는 이달 초 '카카오 드라이버'로 손님을 받은뒤 이른날 콜센터의 대리기사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다. 이씨는 "등급이 떨어지니 반경 50km 이내에 콜이 안 잡힌다. 카카오 드라이버

를 이용하면 대리운전업계에서 쫓아내겠다는 뜻"이라며 "내가 카카오 드라이버 콜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심박하다.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생존권 약탈"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리운전업체들이 기사들의 카카오 드라이버 콜 수락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인권침해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기사들이 카카오 드라이버 앱을 설치만 해도 적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카카오 드

라이버 앱 해킹설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카카오는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가져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다만 서류 준비 등의 이유로 신청 시점이 지연됐다"며 "이번 사건은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행위이자 종사자들에게 대한 협박이다. 대리운전기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 사회 초년생에 최대 1억 신용대출

KEB하나은행, 공무원 5천만원, 직장인·전문직 1억원까지

KEB하나은행은 공무원 최종합격자와 기업 입사합격자, 전문자격증 취득자에게 신용대출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사회 초년생의 기본 생활 안정과 기반 마련을 위해 입사예정 회사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공무원 합격자는 '행복 투게더(Together) 프리미엄주거대출'을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기업 신입사원이라면 '직장인 주거대출', 의사·변호사·도선사·변리사 같은 전문직

합격자라면 '닥터클럽대출'이나 '하나프로세서널론' 등으로 최대 1억원까지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KEB하나은행은 신용대출이 없는 손님을 위해 거래실적에 따라 3%대 초반의 특관금리 적용기회를 마련해 놨다. 또 별도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금융그룹의 통합멤버십 서비스인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를 최대 5만머니까지 적립 받게 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담당자는 "KEB하나은행은 성실하고 스마트한 예비신입사원 손님을 응원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 '갤럭시 S7 엣지 올림픽 에디션' 오늘 출시

삼성전자 온라인 스토어에서 106만7000원에 판매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무선 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가 '갤럭시 S7 엣지 올림픽 에디션'을 18일 국내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온라인 스토어에서 '갤럭시 S7 엣지 올림픽 에디션'을 106만7000원에 판매한다.

'갤럭시 S7 엣지 올림픽 에디션'은 삼성전자가 리우 올림픽을 기념해 특별 제작한 것으로 한국을 포함한 브라질, 미국, 독일, 중국 등에서 출시된다.

블랙 색상의 '갤럭시 S7 엣지 올림픽 에디션'은 홈·전원·음량 조절 버튼과 카메라 테두리 등에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프톤의 다섯 가지 색상을 적용했고 올림픽 테마와 전용 UX를 탑재해 특별하게 디자인했다.

이번 올림픽 에디션 구매 고객에게는 '기어 VR'을 제공해 리우 올림픽 가상 현실 중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 피트니스에 특화된 코트포리 이어셋 '기어 아이콘X'도 증정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S7 엣지 올림픽 에디션'은 오는 8월 개최하는 리우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제품"이라며 "특별한 제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 "보험업계, 저금리 4년 뒤 순익 30% 감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오는 2020년이 되면 보험업계의 이익 규모가 현재보다 약 30%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현재 계획적 가정 및 시장금리가 유지된다면 고 가정할 때, 향후 이자율 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세전 순익 감소가 예상된다"며 "2015년 보험업계의 순익을 1로 표준화했을 때 올해 순익은 0.9, 2020년 순익은 0.6까지 줄어들

보험상품 경쟁력 약화 · 이차역마진 우려 커져  
IFRS4 2단계 ·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부담 확대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국고채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하면 공시이율도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오르기 때문이다. 이차 역마진 문제도 심각하다.

생명보험사들은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28%였던 금리연동형 상품 비율을 지난해 76%까지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금리확정형 상품의 부채 비중은 높다. 생보사 기준 금리확정형 상품 부채 비중은 전체의 43%에 달하고, 그 중 5% 이상 고금리 확정형 계약 비중은 30.8%다.

조 연구위원은 "저금리 장기화로 보

험회사의 수익성 하락 및 건전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특히 향후 부채시가 평가가 기반으로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은 저금리 대응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들은 영업 이익 제고를 통해 손실 준비금 적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회사들은 주요국의 계약이전, 계약전환, 계약조건 변경제도 등을 참고해 보유계약의 저금리 위험을 감소시킬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상품포트폴리오를 시장상황에 맞게 변화시키고 소비자보호 및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진수 기자

## 쉐보레 트랙스, 상반기 완성차 수출 1위

한국지엠은 쉐보레 트랙스의 올해 상반기 수출량이 총 12만5042대를 기록해 국내 완성차 중 수출량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쉐보레 트랙스는 지난 2012년 수출을 시작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총 80만4977대가 팔렸다.

연도별 수출량은 ▲2012년 4만2000대 ▲2013년 19만3764대 ▲2014년 22만2440대 ▲2015년 22만1641대로 매년 증가세다.

회사 측은 "트랙스의 누적 수출량

80만대를 넘적으로 계산하면 여의도 면적 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수출량 1위를 기념해 이날 매일 설리번 한국지엠 영업·A/S·마케팅 부문 부사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령 분사 홍보관에서 축하 행사를 열었다.

설리번 부사장은 "앞으로도 뛰어난 상품성과 기술력을 갖춘 쉐보레 제품을 전 세계 곳곳으로 수출해 더 많은 글로벌 고객에 뛰어난 제품 가치를 경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